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372-6666 시공 삼일건설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376호 1판 (음력 9월 19일)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막가는 GGM … 시민 감시도 광주 업체도 외면

‘광주형 일자리’ 혈세 투입에도 시민 감시·견제 거부 ‘사유화’ 입찰 등 운영에도 지역업체 제외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서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돼 자동차공장을 짓고 있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시민의 감시·견제권을 거부하고, 입찰 등 운영과정에서 되레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GGM은 ‘광주시민이 주인’인 회사”라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광주시의 감시·견제 속에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시의회, GGM 등에 따르면 GGM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에서 연 10만대 규모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으며, 현재 66%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총 5754억원이 투입되는 GGM은 총 37개 투자자로 구성됐으며, 자기자본금 2300억원 중 광주시 483억원(21%·1대 주주), 현대차 437억원(19%·2대 주주) 등이 투자됐다. 나머지 3454억원은 외부 투자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공장과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 그룹이 임원진에 대거 포진하면서 업무 미숙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KDB산업은행 주도로 국내 대형은행 6~7곳이 대출은행으로 나서고 있으나, GGM측은 은행별로 제각각인 제출서류 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GGM을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GGM측은 일반회사와 달리 광주시민 주도로 태어난 ‘시민이 주인’인 회사인데도, 광주시는 물론 시민대표인 시의회 등의 자료요청마저도 각종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 이미 483억원이라는 막대한 광주시 예산이 투입됐지만, GGM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규정과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논리를 내세워 광주시와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GGM 최대 주주인 광주시 산하 그린카진흥원을 통해 회계열람권과 검사권 등으로 일부 견제에 나설 수 있긴 하지만, 최근 원장 자리에 현대차 부사장 출신이 선임되면서 이마저도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GGM에서는 현대차 부사장 출신인 박광식 부사장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 부사장 출신간 교감이 오고가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GGM이 어느 곳의 감시나 견제도 받지 않는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되다 보니, 일부 임원이 회사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엔 200억원대로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업체 선정을 앞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GGM은 내년 4월 공장준공에 맞춰 공장과 주차장 부지 등 13만8970㎡에 1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입찰 방식 등을 놓고 지원기관인 광주시와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GGM측은 내부적으로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 등에 관련 공사를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GM은 앞서 지난달에는 구내식당 입찰공고를 내면서 ‘2019년도 매출 기준 3000억원 이상’ 등으로 대형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배제하는 행태를 보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GGM은 현재 지역업체 참여조건 등을 넣어 재공고 한 상태다.

GGM은 지난해 11월에도 자동차공장 신축 입찰공고에 올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10위 이내 건설사로 제한해 사실상 지역건설 업체의 참여를 막았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GGM은 광주 발전을 위해 지역 업체와 상생 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특수한 사업 형태인 만큼 모든 운영과정도 광주시민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열린 제 91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만세를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회〉

정세균 총리, 제91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참석

“코로나 위기, 광주 청년정신으로 극복하자”

5·18민주묘지 찾아 헌화·분향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91년 전 선조들이 그랬듯, 광주의 청년 학생들이 그러했듯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청년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린 ‘제91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민주화의 성지에 서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국민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삶이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국민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본받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면서 “청년에게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수 있는 나라, 실패가 성공의 받침대가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이어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 앞에서 몸을 낮춰 묘비를 어루만지며 열사의 뜻을 되새겼다. 정 총리는 별다른 발언 없이 박관현 열사 묘와 2묘역을 둘러본 뒤 고개 숙여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민주의문 앞 방명록에는 ‘자랑스런 5·18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정 총리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석규 애국지사,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과 6·10 만세운동과 함께 일제 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힌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은 과거 교육부 주관으로 각 지역 교육청에서 기념행사로 열리던 것과 달리 지난 2018년부터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돼 3년째 보훈처·교육부 공동주관으로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미국 대선 운명의 날 오늘, 누가 웃을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전의 날인 3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운명을 가를 투표가 이날 오전부터 미 전역에서 실시됐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오전 0시(이하 현지시각) 뉴햄프셔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을 시작으로, 주별로 오전 5시부터 8시 사이에 시작된 투표는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마감된다.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골 마을인 딕스빌노치와 밀스필드에서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2시)에 동시에 마감한 첫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 16표를 얻어 10표에 그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6표 차로 눌렀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가 맞물릴 경우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삼수 끝에 대선 후보직을 꿰찬 바이든 후보 간 한 치도 양보 없는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우위에 서 있다.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의 여론조사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일 오후 기준 전국 단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6.5%포인트 앞섰다. CNN방송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후보가 경합 지역을 제외하고도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각각 290명,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다. 선거 분석매체 538은 바이든 후보의 승률을 89%로 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96%로까지 높여 잡았다.

그러나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는 오차범위 승부가 많아 당락을 속단하기엔 이르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는 바이든 후보가 3~6%포인트대 격차로 앞서지만,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선벨트’ 3개 주에선 오차범위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원전 주변 주민들 암 발생 피해 호소 ▶6면
KIA 타이거즈 2020 시즌 결산 - 야수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weeks
고함량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필자 주름 등을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